

<페루> 카스티요의 선거 승리 - 의미와 전망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 사회주의통합당 (CS 아르헨티나) 연락위원회 성명, 2021년 6월 11일,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 & www.thecommunists.net

1. 페드로 카스티요의 선거 승리는 대중 속에서 일고 있는 정치적 좌경화 물결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러한 변화 자체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계급투쟁이 대대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데서 따른 결과다. 콜롬비아의 혁명적 봉기, 최근 칠레 선거에서의 좌경화, 브라질에서 새롭게 솟고 있는 대중행동, 아르헨티나에서의 연쇄 파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말이다.

2. 맑스주의자들은 기회주의 좌익들과는 달리 카스티요 (및 그의 자유페루당)의 선거운동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 아무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카스티요의 선거 승리가 매우 주목할 만한 이유는 그가 “아웃사이더”임에도, 즉 부르주아 기성 정치권 밖에 있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그에게 투표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파업 조직자이자 교원 노조의 전투적 지도자로 유명해졌다. 그가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된 것은 급진적 헌법 개정과 대규모 경제 개혁 (기간산업 국유화 포함)에 대한 대중의 여망을 등에 업을 수 있어서다.

3. 카스티요 승리의 정치적 의의는 이러한 사태전개, 즉 대중의 급진화를 대표한다는 데 있다. 맑스주의자들은 이번 선거가 “사회주의자”를 권좌에 앉힐 것이라고 주장해온 기회주의 좌익의 견해를 강하게 반박한다. 그러한 견해는 노동자 투사들이 환상을 극복하도록 돕는 건 고사하고 혼동만 일으킬 수 있을 뿐이다.

4. 카스티요를 비롯한 자유페루당의 지도부는 고전적인 개량주의, 좌파 민중주의(포퓰리즘) 정책을 대표한다. 그들은 다양한 급진적 개혁을 약속하지만, 진정으로 자본주의 계급지배에 도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카스티요 자신이 밝힌 바에 의해 명백해진 사실이다. 그는 일단 집권하면 국유화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선거에서 승리하여 부르주아 기관 내에서 바뀌어나가는 — 이들 부르주아 기관에 맞선 전투적 대중행동을 피하는 — 고전적인 개량주의 경로를 선택한다. 실제로, 선거결과를 존중한다는 군 지휘부의 최근 공개 성명을 보면, 지배계급이 카스티요를 급진적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믿고 협력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이런 이유로 볼 때 지배 엘리트가 카스티요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은 현 상황에서는 없어 보인다. 만약 그러한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맑스주의자들은 반동적 공격을 패퇴시키기 위해 대중을 편들 것이다.

6. 지금 주된 위험은 카스티요가 자신의 선거 승리를 대중을 진정시키는 데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새 정부의 개혁 발의 때까지 기다리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수탈·몰

수와 타도로 나아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 그저 인민대중의 급진화 물결을 무마하고 진정시키는 데 급급한 것, 이것이 카스티요 신정부가 드러낼 진면목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본질이 필연적으로 신정부를 부르주아지의 시종으로 되게 하는 객관적 요인이다.

7. 맑스주의자들은 카스티요에 대한 일체의 환상에 경계를 발하지만, 인민대중이 품고 있는 희망을 고려에 넣는 것도 필요하다. 페루에서 혁명가들은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의 환상을 받아 안고 이 환상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카스티요 정책의 진정한 성격, 그 부르주아적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이 임무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부르주아지를 타도하는 전략을 중심에 두는 투쟁 프로그램을, 대중의 급진적 변화 열망을 받아 안는 투쟁 강령을 정식화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8. 그러한 투쟁 강령은 일련의 긴급한 최소 요구들, 사회·경제·보건상의 요구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최소요구를 다음과 같은 요구와 결합시켜야 한다. △노동자·민중 통제 하에 공공보건 부문의 대규모 확대! △노동자 통제 하에 기간산업과 은행의 국유화! △토지를 가난한 농민에게! 대지주와 다국적 기업의 수탈·몰수! △노동자·민중 평의회와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빈농 정부!

9. 헌법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맑스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짊어 들되 혁명적, 반 개량주의적인 방식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부르주아 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의회와 무장 민병에 의해 조직된 투쟁 대중들에 의해 소집되고 통제되는 **혁명 헌법제정회의!**

10. 카스티요가 선거에서 이긴 것은 대중이 그가 급진적인 개혁을 실행할 것으로 기대해서다. 혁명가들은 카스티요가 그러한 급진적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고 실행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참을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대중이 그러한 급진적 요구를 위해 행동에 나서도록 호소, 촉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환상을 꺼안아야 한다. *“그럴까요? 우리는 카스티요가 그러한 요구를 실행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신정부에 그러한 급진적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섭시다.”* 이러한 호소는 카스티요의 중요한 지지 기반을 이루는 대중조직들 (노동조합, 농민단체, 원주민 조직 등)에도 전달되어야 한다.

11. 중요한 것은 카스티요의 개량주의적 본질을 참을성 있게 설명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요구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 결집을 호소, 촉구함으로써 대중이 환상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대중 스스로 자신의 투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민중총회와 정당방위대 같은 자주적 기관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핵심 대목이다. 그러한 자주적 조직체 없이 대중이 관료 기구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대중을 해산시키고 패배로 몰아갈 관료 기구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민중총회와 정당방위대 같은 자주적 대중행동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12. 끝으로, 이러한 투쟁방향에 동의하는 일선 투사들은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일부로서 **혁명당**으로 통일 단결해야 한다. 그런 당을 제때 건설해야만 대중조직 내 각종 개량주의·스탈린주의 세력들의 악영향과 싸울 수 있다.

* * * * *

* 페루 선거에 관한 다음의 사회주의통합당 (CS) 논설 두 편을 참조하시오.

<페루: 대중의 좌선회와 새로운 민중주의 닷>

Por Juan Giglio, 2021-06-08,
<https://masnoticiassocialistas.blogspot.com/2021/06/peru-el-giro-la-izquierda-de-las-masas.html>

<알타미라와의 논쟁과 카스티요의 말에 오른 좌익>

Por Damián Quevedo, 2021-06-09,
<http://masnoticiassocialistas.blogspot.com/2021/06/debate-con-altamira-que-se-subio-al.html>